

3-1

홍주읍성 및 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

관리분야	문화관광				추진상황	정상추진(예산확보, 공사중)				
사업구분	성격별		기간별(임기내)		사업비별		재원별		소요사업비	
	신규	계속	완료	착수	예산	비예산	국도비	군비		기타
		○			○		○	○		217,582백만원
사업주체	국가	도	자체	민간	사업기간	2004 ~ 2032		팀 장 박미정(☎1807) 엄진주(☎1362) 담당자 장용민(☎1690) 최영호(☎1300) 유환래(☎1256)		
주관부서	문화관광과				관련부처	문화재청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홍주읍성 복원·정비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전통경관을 조성하고 홍주읍성과 홍주성지를 연계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기반 마련 및 역사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 사업대상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 사업내용 :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종합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성곽·관아건물 복원 및 경관정비 등

□ 그동안 추진실적

- 2004.~2021. : 문화재 지정구역 내 사유지 171필지 43,283㎡ 매입, 의병공원 및 역사공원 조성, 남문(홍화문) 복원, 수구유적·북문 정비 등
- 2022. : 북문 문루 복원 현상변경 허가 및 동측성벽 정비 공사 착수,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착수, 여가 문화공간 조성 준공 등
- 2023. : 북문 문루 복원 착공, 북서측 성곽 발굴조사 착수, 조양문 주변 보상 및 철거 완료, 북문 동측성벽 정비 준공, 북동측 성곽 발굴조사 완료, 종합정비기본계획 완료 등

□ 문제점 및 대책

- 사업비 확보 및 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력 필요
 - 2004년부터 추진 중인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의 가속화를 위해 국비 확보 총력 및 군 자체 예산 집중투자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재 복원·정비와 함께 활용방안 모색 필요
 - 홍주읍성 정비와 함께 홍주성지 등 각종 관광프로그램 및 관광상품개발 로드맵 구축
 - 전통양반문화체험공간 등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여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4. : 북문 문루복원 준공, 북동측 성곽 및 북서측 성곽 복원공사 착공, 동남측 성곽 발굴조사 착수, 객사 부지 매입 및 발굴조사 추진,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수변공간 조성 등
- 2025. : 북동측 성곽 및 북서측 성곽 복원공사 완료, 객사 복원공사 추진 등
- 2026. ~ 2027. : 홍주초 매입·철거 및 정비, 동남측 성곽 복원공사 완료, 군청사 이전 후 철거 및 관아복원 준비 등
- 임기 후 : 관아 및 수로 복원 등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 후
추진계획	· 북문동측성벽 정비 및 북문 문루 복원 · 여가문화 공간 조성	·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 추진 · 객사지 부지 매입	· 객사향청 부지 발굴조사 · 동문자·서문지 성곽 발굴조사 및 복원공사착공	· 동문자·서문지 성곽 복원	· 홍주초 매입 · 객사향청 복원	· 관아 및 수로 복원 등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별

(단위:백만원)

사업별	연도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217,582	60,855	11,057	27,598	22,580	39,908	2,486	53,098
북문 동측성벽 정비		2,992	-	1,000	1,992	-	-	-	-
홍주읍성 정밀조사		83	-	17	22	22	22	-	-
종합정비기본계획(별경수립)		200	-	200	-	-	-	-	-
여가문화공간 조성공사		598	-	598	-	-	-	-	-
조양문주변매입및역사공원조성		9,700	-	8,220	1,480	-	-	-	-
북문문루복원		1,019	-	22	981	16	-	-	-
홍화문보수		350	-	-	350	-	-	-	-
북동측성곽발굴조사		1,000	-	1,000	-	-	-	-	-
문화재지정구역토지매입		6,393	-	-	6,393	-	-	-	-
수변공간조성		3,985	-	-	3,000	-	985	-	-

연도별 사업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북성곽 서발굴 조차	1,200	-	-	1,200	-	-	-	-
치성동 측성벽수 긴급보수	100	-	-	100	-	-	-	-
객사향청 부지매입 및발굴 조차	29,619	-	-	10,490	17,062	2,067	-	-
여가문화공설 관조명설치	820	-	-	820	-	-	-	-
북동측 성곽복원· 정비 실시계	370	-	-	370	-	-	-	-
북서측 성곽복원· 정비 실시계	400	-	-	400	-	-	-	-
동남측 성곽차 발굴 조차	800	-	-	-	800	-	-	-
동남측 성곽차 복원·정비 실시계	200	-	-	-	200	-	-	-
동남측 성곽차 복원·정비	2,000	-	-	-	-	2,000	-	-
북성곽 복원·정비 차	6,600	-	-	-	-	6,600	-	-
북동측 성곽차 복원·정비	6,210	-	-	-	4,424	1,786	-	-
치성동 측성벽 정비 실시계	596	-	-	-	56	540	-	-
객사향청 복원·정비	10,433	-	-	-	-	10,433	-	-
홍주초(7필지) 토지매입	15,475	-	-	-	-	15,475	-	-
군청사 철거공사	2,300	-	-	-	-	-	2,300	-
서문지 복원 정비 실시계	186	-	-	-	-	-	186	-
관아복원 등	53,098	-	-	-	-	-	-	53,098

○ 재원별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기투자	임기 중 투자계획					향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217,582	60,855	11,057	27,598	22,580	39,908	2,486	53,098
국비	99,053	38,418	700	4,433	3,851	19,729	130	31,792
도비	22,351	6,414	150	1,128	825	4,226	28	9,580
군비	95,878	16,023	10,207	21,737	17,904	15,953	2,328	11,726
기타	300	-	-	300	-	-	-	-

□ 연차별 자원 확보 및 집행내역

(단위:백만원)

연도별 재원별	계		임기 중 확보 및 집행내역									
	확보	집행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확보	집행
소 계	38,845	17,137	11,057	9,150	27,788	17,843	17,838	-	-	-	-	-
국 비	5,033	2,976	700	700	4,333	3,976	3,854	-	-	-	-	-
도 비	1,278	638	150	150	1,128	973	824	-	-	-	-	-
군 비	32,234	13,524	10,207	8,300	22,027	12,894	13,160	-	-	-	-	-
기 타	300	-	-	-	300	-	-	-	-	-	-	-

□ 공약달성 확인지표

구분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임기후
계획	개별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완료	건/식	23	1	7	6	4	4	1
실적				1	1				
달성				달성	추진중				

□ 군민 소통 현황

(단위: 회)

설명회·공청회	민간전문가 등 자문	언론·방송보도	설문조사	기타
2	다수	다수	-	-

□ 공약 변경사항

관리번호	공약명	변경구분	변경내용	변경일	비 고
3-1	홍주읍성 및 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	소요사업비 변경	124,500백만원→ 217,582백만원	23. 11.	공약이행 평가단 의결

□ 증빙자료 첨부 (위치도)



□ 증빙자료 첨부 (조감도)



□ 증빙자료 첨부 (현장 사진)



종합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착수보고회



종합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자문회의



종합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종합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최종보고회



여가문화공간 조성 준공



북문 문루 복원 착공



북동측 성곽 발굴조사 착수



북서측 성곽 발굴조사 착수



조양문 주변 정비 대상지 매입 및 철거 완료



북문 동측성벽 정비 준공

홍성군 홍주읍성 복원 속도낸다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내년부터 군비도 투입

18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홍성 홍주읍성 복원이 민선8기 출범 초부터 속도를 내고 있다.

홍성군은 18일 군청 회의실에서 이용록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 수행은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맡겼으며 2023년 6월까지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홍주읍성 종합정비기본계획에는 지난 2004년 최초 수립이후 변화된 국가정책이나 주변 여건을 반영해 성곽 및 관아 건물 복원을 비롯한 단기적·장기적인 유적 정비 로드맵 등을 재수립하게 된다. 또한 홍성군 청사 이전 후 정

비 방향과 활용 방안, 향후 투입될 예산에 대한 운용 계획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이 홍주읍성 정비사업 추진 경과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홍주읍성의 정비 방향과 부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을 설명했다.

홍성군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원도심 전통 공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홍주읍성 복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특히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은 그동안 국비나 도비 지원에 의존해 추진함에 따라 진척이 늦어졌으나 내년부터는 군비를 투입해 읍성 복원에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취임 하루 전인 지난달 30

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홍주성 복원을 추진함에 있어 이전 도비나 국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비를 투입해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주읍성 복원 정비 사업은 매년 국비 지원이 10억~20억 원 수준에 불과해 지금까지 남문 복원, 수로·연지 복원, 성벽 정비, 탐방로 연결, 역사공원 조성 등만 끝내는 등 18년 동안 20% 진척에 그치고 있다. 올해는 북문 동측 성벽 정비공사, 북문 문루 복원 설계, 여가 문화 공간 조성, 조양문 주변 토지·건물 매입 등을 추진한다.

이용록 홍성군수는 “홍주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23.1 X 17.9 cm

홍성 홍주읍성 공터 주민 여가문화 공간된다

홍주성역사관 인근 임시주차장 11월말까지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 벤치·파고라 등 휴식시설도 설치

장기간 임시주차장으로 방치됐던 홍주읍성 내 공터가 주민들의 여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14일 홍성군에 따르면 장기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홍주읍성 내 홍주역사관 인근(오관리 108번지 일원 등) 공터 8461㎡(2560평)에 사업비 5억 9800만 원을 들여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홍성군은 장기간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해 온 홍주읍성 내 홍주역사관 인근 공터에 11월까지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사진은 여가문화 공간 조성부지 모습. 홍성군 제공

공터는 홍주읍성 복원을 위해 성내 건물을 철거한 자리로 지난 10여년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해 왔다.

군은 공터에 축제와 행사·교육 체험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소나무 식재 및 벤치와 파고라 등 휴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노후화된 가로등을 경관조명 가로등으로 교체해 탐방로 조도를 높이는 등 야간 도시경관도 개선해 쉽게 있는 공간으로 군민 품에 되돌려 줄 방침이다.

여가공간은 10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1월 말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실시계획을

끝내고 8월 29일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얻은 바 있다.

이용록 군수는 “홍주읍성 내 다양한 축제 및 행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해 군민이 편안하게 일상과 문화를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홍주읍성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전통음식체험공간 조성 공사가 14일 착공함에 따라 복지정책과 옆 임시 주차 공간(오관리 110-17)도 내년 9월까지 1년간 폐쇄할 예정이다.

홍성=이석호 기자 ilbole@ggilbo.com

30.7 X 13.5 cm

홍주읍성 복문 문루 복원 탄력

홍성군, 문화재청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 받아

홍성군이 지난 1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를 받아 2017년부터 추진해 왔던 '홍주읍성 복문 문루 복원'에 대한 길이 열렸다.

홍주읍성 복문은 2017년 발굴조사를 거쳐 전체적인 면모를 확인했으나, 문루의 규모 및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고증자료가 부족해 2020년 문루를 제외한 체성부와 응성만 복원됐다.

이에 군은 복문 문루 복원의 근거를 찾기 위해 2021년 서문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문루와 관련된 적심 4기, 문지도리석 1매를 확인했다. 홍주읍성 복문지와 서문지가 1870년 같은 시기에 동일 규모로 정비됐다는 문헌에

따라 2022년 복문 문루 복원을 위한 기본설계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1차 현상변경 심의는 보류됐으나, 문화재위원 현지 조사 과정에서 참여위원들에게 역사에 근거한 다양한 복원 방법을 제시하고,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복원하겠다는 군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통해 이번 성과를 거뒀다.

군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를 투입해 올해까지 실시설계 및 문화재청 설계승인을 받아 내년부터 문루 복원 정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홍주읍성 내 임시주차장 공간을 여가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2023년도에는 조양문 주변 성곽을 정밀 발굴 조사하며, 조양문 주변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해 군민과 방문객을 위한 역사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의 가속화 추진을 위해 국비나 도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군비를 투입해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용록 군수는 "홍주읍성 문루 복원심의 통과는 주민들의 오랜 열망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홍주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되살려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 주변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순우기자

18.2 X 13.7 cm

이용록 홍성군수 홍주읍성 복원 32억 확보

문화재청장 만나 긍정 답변 얻어 국비 지원액 당초보다 18억 증가

이용록 홍성군수는 지난달 29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예방하고 홍주읍성 복원 등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 군수는 이 자리서 홍주읍성 복원과 의병기념관 건립, 매장문화재 발굴 등 홍성지역 문화재 현안을 집중 설명했다.

이 군수는 홍주읍성 복원과 관련해 군비 251억 원 투입 계획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설명한 뒤 성과 원형복원을 위한 복문지 동측 성벽 정비공사 및 토지·지장물 매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의병기념관과 관련해서는 홍성군에 산재한 항일 유적 자료를 전시기념할 공간의 필요성과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회원도시로서 항일 의병운동의 중심지임을 설명하고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지원을 부탁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홍주읍성 복원을 위한 국비 지원액으로 당초 14억 원보다 18억 원 증가한 32억 원을 확보했으며 2023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고 군은 밝혔다.

이용록 군수는 "홍성군은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서천에 이르기까지 22개 군현을 관할했던 역사의 숨결이 살아있는 도시"라며 "홍주읍성 복원을



지난달 29일 문화재청을 방문한 이용록 홍성군수가 최응천 문화재청장에게 홍주읍성 복원과 의병기념관 건립, 매장문화재 발굴 등 홍성지역 문화재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홍성군 제공

중심으로 구도심에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에 군민계 되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홍성=이석호 기자 hillee@ggilbo.com

30.8 X 15.7 cm

홍성 홍주읍성 유희공간 문화센터로 돌아왔다

홍주성역사관 옆 일대 8461㎡
잔디광장·휴식시설 등 갖춰
4일 조성기념 문화놀이터 행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홍성 홍주읍성 내 유희 공간이 여기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민의 함으로 돌아온다.

30일 군에 따르면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홍주성역사관 옆 일대 8461㎡에 지역민들의 휴식을 위한 여기문화 공간을 조성해 12월부터 일반에 개방한다.

홍주성역사관 옆 일원은 각급 기관들이 입주한 건물에 있던 자리였으나 기관이 이전하면서 그동안 유희공간으로 방치돼 오다 최근에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돼 왔다.

군은 이 일대에 축제 및 행사·교육체험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소나무 식재와 벤치 및 피코라 등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홍성 홍주읍성 내 유희 공간이 여기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12월부터 지역민에 개방된다. 조성 사업을 완료한 홍주읍성 여기문화 공간 모습. 8층은 4층

등 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12월부터 지역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게 됐다.

이윽고 홍성군수는 "앞으로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조성, 전통음식체험공간 건립, 객사·향정 복원, 서문 복원을 통한 4대문 완성 등 홍주읍성 복원·정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홍

주읍성을 사적공원으로 만들어 역사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은 홍주읍성 여기문화 공간 조성을 기념해 오는 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지역단체와 함께하는 문화 놀이터'

행사를 개최한다.
문화놀이터 행사는 ▲이벤트마당 (가족사진 찍어주기 이벤트, 비닐쇼, 벌룬쇼) ▲공연마당(마당극, 팔각정 버스킹, 댄스패들 등) ▲놀이마당(대형 윷놀이, 주사위 던지기, 한궁체험 등) ▲체험마당(연 만들기, 풍선만들기, 대나무 활 만들기, 비눗방울 체험, 만들기 체험 등) ▲전시마당(디카시 전시, 사진 전시, 시화 전시 등) ▲먹거리마당 ▲정터마당(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군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장을 만든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군가족센터, 홍성군도시재생지원센터, 홍성군사적작가협회, 홍성환경농업마을, 발원마을회, 들꽃사랑방, 내포사랑예술단 풍경소리, 홍성군 한궁협회, 홍성군6차산업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단체가 참여해 축제 분위기를 돋울 계획이다.

홍성=이석호 기자 ilsoke@ggilbo.com

30.7 X 18.4 in

중양매일

2023년 01월 11일 (수)
07면 지역

홍성군 홍주읍성 북동측 성곽 발굴조사 위한 임시주차공간 폐쇄

함께 살아숨쉬는 문화재로 가꿔 나가기 위한 초석 마련

홍성군은 홍주읍성 북동측 성곽 발굴조사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북문지 동측에서 조양문에 이르는 구간의 임시주차공간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홍주읍성 북동측 성곽 발굴조사'에 대한 문화재청의 발굴허가 통보에 따라 신속한 홍주읍성 복원·정비를 위해 그동안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됐던 구역에 발굴조사를 곧바로 시작했으며 군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임시 주차공간에 폐쇄 현수막을 게시했다.

아울러 허가건축과 주변 (구)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 (구)부흥마트 맞은편 임시주차장, 대교공원 주차장, 정보화교육장 주변 공터, 홍주읍성 남문 인근 공영주차장, 홍성성결교회 주차장 등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이 대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황선돈 문화관광과 과장은 "발굴조사로 인해 임시주차공간을 폐쇄하게 됐다"며 "홍주읍성 복원·정비의 가속화를 통해 홍주천년의 역사성을 회복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문화재로 가꿔 나가기 위한 일환이며 군민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23년까지 북동측 성곽 발굴조사 및 복원·정비 실시설계와 함께 내년 복원·정비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3년도 홍주읍성 복원·정비'에 군정역량을 집중해 북문 문루 복원 및 동측 성벽 정비, 조양문 주변 역사공원, 전통양반 문화체험공간 조성 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성 / 오천수 기자

19.2 X 9.5 cm

홍주읍성 서문지 주변 성곽 발굴조사 본격 착수

옛 홍성군정보화교육장 임시주차장 폐쇄 예정

홍성군이 홍주읍성 서문지 주변 성곽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및 발굴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초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발굴조사로 멸실된 홍주읍성의 성곽 유적의 복원을 위해 서문지에서 서 북문지에 이르는 구간인 홍성읍 오관리 31-2 일원 6690㎡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발굴조사 구간에 포함된 임시주차공간이었던 옛 홍성군정보화교육장은 폐쇄될 예정이며 군민들과 군청 직원들의 혼선이 없도록 주차 공간 폐쇄 현수막을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발굴조사를 통해 지난 2021년 당시 확인된 서문지 옹성·문지 구조 등 전체적인 현황을 바탕으로 고려시

대 초축 성벽과 조선시대 석축 성벽의 수·개축 현황을 파악하고 멸실된 성곽 복원·정비를 위한 학술 기초자료를 확보키로 했으며 3월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및 발굴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한 군은 내년 3월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2024년 6월까지 성곽복원·정비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성곽복원·정비 공사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황선돈 문화관광과장은 “홍주천년의 역사성 회복 및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멸실된 성곽의 복원·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발굴조사로 인한 임시주차공간의 폐쇄는 정확한 발굴 일정이 잡히는 대로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으로 군민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주읍성 성곽 발굴 예정지 모습. (사진=홍성군 제공)

한편 군은 민선 8기 임기 내 멸실성곽 복원의 시작점인 북문지 동측 성벽 복원·정비(석성 L=100m) 공사가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10월 홍주읍성 북문지 동측에서 조양문에 이르는 구간은 발굴조사 완료 후 2024년 1월 성곽 복원·정비 실시설계를 거쳐 2024년 3월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홍성/김원중 기자 wjkim37@dailycc.net
18.5 X 14.8 cm



파괴된 성곽 복원 시작을 위한 북측 동측성벽 복원 정비 작업이 지난 3월 공사중지 해제가 됐다. 사진은 홍성 홍주읍성 북문 동측 성벽 정비 현장. (홍성군 제공)

‘이용록 군수 공약’ 홍주읍성 복원 속도

북측 동측성벽 공사중지 해제
11월 준공 목표로 복원 ‘박차’
북문 문루복원도 내달부터 진행

이용록 홍성군수의 공약인 홍주읍성 복원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파괴된 성곽 복원 시작을 위한 북측 동측성벽 복원 정비 작업

이 지난 3월 공사중지 해제가 됐다. 이후 11월 준공을 목표로 복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대문 완성을 위한 시작점인 북문 문루 복원도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을 받아 12월 준공을 목표로 내달부터 본격 복원이 진행된다. 성곽 복원을 위해 조양문 및 서문지 주변 성곽 부지도 매입을 완료했고, 하반기 추가 매입을 위한 보상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양문 역사공원 조성사업도 지난해 부지를 매입해 이달 중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군수는 “지지부진하던 홍주읍성 복원 및 정비사업이 속도가 붙어 홍주읍성 일원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며 “파괴됐던 성곽 등을 복원해 군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홍성=김지현 기자 wjgusk1223k@octoday.co.kr

22.9 X 20.6 cm

홍성군, 24년도 문화재청 국비 39억 확보

동남측 성곽 발굴조사 등 5개사업 대상 홍주읍성 복원·정비 급물살...탄력 기대

홍성군이 민선8기 홍성군정의 핵심키워드인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에 대한 문화재청 국비 39억원을 확보하면서 사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는 이용록 군수가 지난 7월 최우천 문화재청장을 면담하는 등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일즈 행정의 결과다.

군에 따르면 국비가 반영된 사업은 △북동측 성곽 복원·정비 △동남측 성곽 발굴조사 △동남측 성곽 복원·정비 실시설계 △

지성 동측성벽 정비 실시설계 △정밀 모니터링까지 5개 사업으로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가 55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최근 복서리방앗간 주변 미매입된 부지매입을 완료하면서 서문지부터 북문지 구간, 북문지 동측부터 조양문 구간에 이르는 멸실 성벽 복원·정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록 군수는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39억원의 국비를



홍주읍성 복원·정비사업

홍성군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우선적으로 멸실된 성벽 복원·정비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멸실된 성벽 복원·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인 조양문 남측 구간홍성능협 오관지점 3필지의 매입 동의를

받은 후 농협 측에서 이전 장소를 물색 중이며, 국제열쇠 등 4필지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홍성/김경호 기자
31.0 X 14.1 cm

홍성군, 홍주읍성 복원사업 '청신호'

멸실된 성곽복원·정비 가시적 성과 도출 적극 세일즈 행정...내년 국비 39억 확보

홍성군이 홍주성 복원 동측성벽 정비공사를 준공하면서 민선 8기 이용록 홍성군정의 핵심키워드인 '홍주읍성 복원사업'에 청신호를 켜다.

군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진행된 멸실된 성곽 복원·정비의 첫 단추인 북문동측 성벽 정비는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 및 여러 차례 기술지도 자문회의 등 여러 차례를 해결하며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

2012년 남문(홍화문) 복원 이후 4대문 완성을 위한 상징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문문루 복원 역시 문화재청 설계 변경 승인 후 2024년 5월 준공

을 목표로 본격 진행을 예고한 만큼 오랫동안 군민의 숙원이었던 북문지 주변 성곽에 대한 복원·정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또한 2024년에는 북동측 성곽(북문 동측성벽 완료지점부터 조양문 북쪽 구간) 정비공사가 2025년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공사가 끝나면 북문지에서 조양문에 이르는 멸실 성곽은 복원·정비가 마무리된다.

이와 함께 멸실된 성곽 복원·정비의 학술자료 및 실시설계 기초자료 획득을 위한 발굴조사도 박차를 가해 서문지(舊 정보 화교육장)부터 북문지 구간은



최근 복원이 완료된 홍주읍성 북문 동측 성벽

홍성군

2024년 7월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동시에 조양문 남측부터 농협 오관지점에 이르는 구간도 2024년 발굴조사를 시작한다.

이용록 군수는 "2026년까지 멸실된 성곽의 복원·정비를 완료하기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2024년 3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며 "객사 및 향청 등 주요 관아 복원·정비를 위한 사업대상지 보상에도 나서는 등 홍주읍성의 틀을 완성시키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성군은 민선 8기 출범 후 원도심 전통 경관 조성 과 역

사문화도시라는 정체성 확립과 관광 인프라 연계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주읍성 복원·정비에 집중적인 군비 투입과 치열한 국·도비 확보 노력, 전담조직 신설 등 군정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홍성/김경호 기자
31.1 X 16.6 cm